



## 국어 영역(A형)

- |       |       |       |       |       |
|-------|-------|-------|-------|-------|
| 1. ④  | 2. ③  | 3. ②  | 4. ②  | 5. ①  |
| 6. ⑤  | 7. ①  | 8. ④  | 9. ⑤  | 10. ① |
| 11. ③ | 12. ① | 13. ④ | 14. ① | 15. ⑤ |
| 16. ③ | 17. ⑤ | 18. ② | 19. ④ | 20. ③ |
| 21. ⑤ | 22. ③ | 23. ③ | 24. ④ | 25. ④ |
| 26. ④ | 27. ③ | 28. ⑤ | 29. ② | 30. ⑤ |
| 31. ② | 32. ① | 33. ② | 34. ① | 35. ① |
| 36. ⑤ | 37. ③ | 38. ④ | 39. ③ | 40. ② |
| 41. ② | 42. ⑤ | 43. ② | 44. ② | 45. ③ |

### 법

#### 1. 회의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 이해

정답 ④

회의 내용 중 여학생이 상대방(남학생)이 한 말을 이해하기 위하여 보충 설명을 요구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④는 여학생의 말하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회장의 마지막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남학생은 ‘급할수록 돌아가라’,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설득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③ 남학생은 네 번째 대화에서 지난 학기에 있었던 합창 대회를 예로 들어 학급 친구들의 의견을 듣는 것, 친구들이 참여의 즐거움을 느끼는 것 등의 소중함을 주장하고 있다.
- ⑤ 여학생의 첫 번째, 세 번째 대화 내용을 통해, 여학생이 상대방인 남학생의 주장에 일부 동의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회의 참여자의 공통된 인식 파악

정답 ③

대화 내용 중, 회장의 ‘시간도 없는데’,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참여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는 말에도 공감합니다.’라는 내용, 남학생의 ‘체육대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친구들도 참여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라는 내용, 그리고 여학생의 ‘친구들 모두에게 체육대회 준비 과정에 참여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해야 하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라는 내용을 통해, 회의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체육대회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ㄱ).’는 것과 ‘체육대회 준비 과정에서 친구들이 참여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야 한다(ㄷ).’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ㄱ과 ㄷ이 짝을 이룬 ③이 정답이다.

#### 3. 고민 해소를 위한 조언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②

‘미선’이 ‘정민’의 동아리 소개 내용을 듣고 “그 정도면 됐네.”라고 판단하고 있고, ‘미선’이 ‘정민’에게 “너 평소애 조리

있게 말 잘하잖아.”라고 한 내용을 토대로 할 때, 동아리를 소개하는 데 많이 긴장되어 너무 떨린다는 ‘정민’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서 ②와 같이 조언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① 가뜰이나 자신감이 없어 후배들 앞에서 동아리를 소개하는 것이 너무 떨린다고 고민하는 친구에게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태도를 가지도록 조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이미 ‘정민’이 준비한 내용이다.
- ④, ⑤ 이들은 오히려 ‘정민’에게 부담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 조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4. 대화자의 대화 태도에 대한 평가

정답 ②

대화에서 ‘인애’는 ‘새롬’의 고민을 들어주며, “아냐, 아냐, 그렇지 않아. 나라도 그 상황이었으면 화가 났을 거야.”처럼 상대방의 말을 비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평가표에 ②처럼 ‘아니다’에 ‘√’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에 ‘√’ 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서운했겠네!” 등에서 드러나는 태도이다. 따라서 ‘그렇다’에 ‘√’ 표시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③ “(고개를 끄덕이며)”, “(손사래를 치며)”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그렇다’에 ‘√’ 표시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④ “웬 한숨이야? 뭐네? 괜잖아. 말해 봐” 등을 통해 ‘그렇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 ⑤ ‘새롬’이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인애’가 ‘새롬’의 말을 요약·정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평가표에서 ‘아니다’에 ‘√’ 표시를 하는 것은 적절하다.

#### 5. 조건에 맞는 대화 내용의 추론

정답 ①

<보기>에서는 공손성의 원리 중 관용의 격률에 따른 사과의 표현을 말하고 있다. 관용의 격률은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어진 대화의 흐름상 ‘인애’의 마지막 말에 대한 ‘새롬’의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표현은 ①이다. “화내지 않고도 말할 수 있었는데, 내가 좀 감정이 북받쳐서 그랬어.”는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화를 내며 말을 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므로,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대화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작문

#### 6. 글쓰기 과정에 대한 이해

정답 ⑤

<보기>의 내용을 통해서 ‘나’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예상 독자의 관심을 고려하여 글의 표현 방법을 선택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① “고민 끝에 친한 친구 3명을 불러 요즈음 학생들의 관심사에

대해 각자 생각나는 것들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했다. ~ 다양한 글감이 나왔다. 그 중에서 ~ ‘청소년 비만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하여 글을 쓰기로 결정했다.” 부분을 통해 친구들과 자유롭게 토의를 한 후 주제를 정했음을 알 수 있다.

- ②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문제 제기 - 원인 분석 - 해결 방안 - 요약·제언’의 순서로 구성하고”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③ ‘초고를 완성한 후에는 글의 내용이 목적과 주제에 부합하는지 ~ 살펴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반복하여 고쳤다.’라고 한 부분을 통해 글의 내용이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고쳤음을 알 수 있다.
- ④ ‘글을 쓰기 위해 자료 조사, 설문 조사, 전문가 인터뷰 등을 실시하여’라는 내용을 통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7. 공고문 작성 시 고려 사항 파악** 정답 ①

<보기>는 ‘공원 내 불법 행위 단속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참고하여 작성한 공고문이다. 그런데 공고문에서는 안내문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순서대로 그대로 나열하였다. 즉, 공고문은 중요도에 따라 안내문의 내용 순서를 재배열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보기>의 공고문에서는 안내문의 제목과 다르게 ‘-입니다’의 경어를 사용하였다.
- ③ 공원에서 행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되는 불법 행위를 부각하기 위해 공고문에서는 안내문의 일부 내용(‘공원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입니다. 다른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는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등)을 생략하기도 하였다.
- ④ <보기>에서는 시각적 자료를 이용해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 ⑤ 안내문에서 제시한 ‘공원 내에서 밥을 짓는 행위, 고기를 구워 먹는 행위’를 공고문에서 ‘음식물 취사’로, ‘애완동물의 목줄을 풀어 놓는 행위,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행위’는 ‘애완동물 관리 소홀’로 포괄하여 항목화하였다.

**8. 개요의 수정 및 보완 방안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④

‘게임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④에서는 ‘악성 댓글 해소 방안’의 하나로 ‘II-가’에서 ‘악성 댓글의 원인’으로 제시된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을 고려하여 ‘게임 셧다운제 실시’를 추가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④는 내용의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개요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③ ‘II-라. 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은 ‘II-나. 정보 통신 윤리 의식 미흡’과 유사한 내용이고, ‘II-라. 악성 댓글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보다 ‘II-나. 정보 통신 윤리 의식’이 좀 더 큰 개념이므로, ‘II-라’를 ‘II-나’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다.

- ⑤ IV는 ‘악성 댓글의 원인과 해소 방안’에 관한 글의 결론에 해당하므로, ‘올바른 댓글 문화 정립’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은 적절하다.

**9. 고쳐 쓰기 방안의 적절성 평가** 정답 ㉕

㉕을 중심으로 앞뒤 문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지만 어떤 마음가짐으로 스트레스에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자체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이다.’가 된다. 따라서 ㉕ 앞의 내용이 ㉕ 뒤의 내용의 근거가 되고 있으므로, ㉕에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러므로’ 정도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⑤에서는 ㉕에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러나’가 부자연스럽게 때문에,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때 쓰거나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끌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러나’로 고쳐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순응’은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여 익숙해지거나 체계, 명령 따위에 적응하여 따름.’의 의미를 가진 말이다. 따라서 문맥상 ㉕에 어울리지 않는다. ㉕에는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함.’의 의미를 지닌 ‘대응’이 오는 것이 적절하다.

**법**

**10. 반의 관계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정답 ①

<보기>에서는 반의 관계의 종류를, 개념적 영역이 상호 배타적인 ‘상보 반의’, 방향상의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방향 반의’, 정도나 등급을 나타내는 ‘정도 반의’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문제에서는 이 중 ‘상보 반의’에 해당하는 사례를 찾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①이다. ‘참’과 ‘거짓’은 개념적 영역이 상호 배타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②, ④ 정도나 등급을 나타내는 ‘정도 반의’에 해당한다.
- ③, ⑤ 방향상의 대립 관계를 나타내는 ‘방향 반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1. 언어의 특성 이해** 정답 ③

<보기>에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언어 공동체에 속하는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바다’를 개인이 혼자 ‘하늘’ 또는 ‘땅’이라고 바꾸어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언어는 사회적 약속 체계이므로 개인이 언어를 함부로 바꿀 수 없다는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사회성’ (③)이라고 한다.

- ① 언어는 말소리에서부터 단어, 문장, 담화 단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단위 내 또는 단위 간에 특정한 규칙이 존재하는 기호 체계라는 것이다.

- ② 언어는 연속되어 있는 현실 세계를 불연속적으로 끊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 ④ 새로운 말이 생겨나기도 하고, 말의 소리가 달라지거나 의미가 변하기도 하며, 이제까지 쓰이던 말이 없어지기도 하는 것처럼,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이다.
- ⑤ 언어 사용자는 한정된 수의 말소리나 단어로 무한한 수의 문장을 만들 수 있거나 단어의 나열을 통해 무한히 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12. 합성어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정답 ①**

<보기 1>에서는 합성어를 일반적인 단어 배열 방식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나누고, 각각에 해당하는 합성어의 단어 배열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보기 1>에서 설명한 단어 배열 방식을 <보기 2>의 단어들에 적용해 보자.

- ㉠ ‘끓주리다 = 끓- + 주리다(용언의 어간 + 용언)’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 ‘기와집 = 기와 + 집(명사 + 명사)’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 ‘덮밥 = 덮- + 밥(용언의 어간 + 명사)’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 ㉣ ‘들어가다 = 들어 + 가다(용언의 연결형 + 용언)’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 ㉤ ‘작은집 = 작은 + 집(용언의 관형사형 + 명사)’이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따라서 ㉠과 ㉢은 비통사적 합성어이고, ㉡·㉣·㉤은 통사적 합성어이므로, 정답은 ㉠이다.

**13. 자료를 활용한 부사어의 용법 이해**

**정답 ④**

㉠에 사용된 서술어 ‘삼(았)다’는 ‘누가(주어)’, ‘누구를(목적어)’, ‘무엇으로(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의 ‘머느리로’는 문장에서 생략할 수 없다. 이는 ㉠에서 ‘머느리로’를 생략할 경우 ㉠이 ‘친구의 딸을 삼았다.’와 같이 어색하게 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에서는 ㉠에서 ‘머느리로’를 생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의 ‘여기서’는 ‘결국’의 앞에 놓일 수도, 뒤에 놓일 수도, 현재의 자리에 놓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 ③ ㉢에서 ‘아주’는 ‘큰’이라는 관형어를 꾸며 주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내용이다.

**14. 음운 변동에 대한 이해 및 적용**

**정답 ①**

<보기>에서는 음운 변동 중 교체에 해당하는 4가지 종류,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의 ‘논일’이다. ‘논일[논닐]’은 앞 음절이 자음으로 끝나고 뒤 음절이 ‘ㄷ’나 ‘ㄱ, ㅋ, ㆁ, ㅁ’ 등과 같이 반모음 ‘ㄷ’로 시작할 때 ‘ㄷ’이 새

로 생기는 현상인 ‘ㄷ’ 첨가가 일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ㄷ’ 첨가 현상은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 현상이 아니므로, ①의 ‘논일’은 교체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같이[가치]’는 형태소의 끝소리인 ‘ㄷ’이 ‘ㄷ’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와 만나 ‘ㅌ’으로 바뀌었으므로 구개음화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 ③ ‘바깥[바깹]’은 음절 끝의 자음이 ‘ㅌ’으로 바뀌었으므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 ④ ‘믿는다[민는다]’는 ‘ㄷ’이 비음인 ‘ㄴ’ 앞에서 비음 ‘ㄴ’으로 바뀌었으므로 비음화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 ⑤ ‘물놀이[물로리]’는 ‘ㄹ’에 인접한 ‘ㄴ’이 ‘ㄹ’로 바뀌었으므로 유음화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문**

**[15~18] 지문 해제**

**도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도움 행동(친사회적 행동)의 개념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심리학에서는 모든 돕는 행동을 ‘도움 행동(친사회적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곤경에 처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그 상황에 제3자가 존재하느냐, 주위에 존재하는 제3자가 낯선 사람이나 친한 사람이나에 따라 도움 행동이 잘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것이다. 또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현재 어떤 감정 및 동기 상태에 있느냐, 곤경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도 도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움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자유가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때, 자신이 겪은 곤경이 자신의 성격·능력·자질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도움 행동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15. 글의 논지 전개 방식 파악**

**정답 ⑤**

지문에서 도움 행동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논지를 분명히 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으므로, ⑤는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①, ② 첫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질문 형식으로 글을 시작하고 있고, 이후 문단에서 이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현상이 일어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③ 첫째 문단에서, 도움 행동의 개념 및 도움 행동은 순수하고 사심 없이 돕는 행동에서부터 이익 추구라는 계산적인 목적으로 돕는 행동까지 모두 포함한다고 그 범위를 소개했다.
- ④ 넷째 문단에서 술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진 경우와 일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 경우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도움 행동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16. 내용 파악을 통한 구체적 자료의 이해 **정답 ③**

[가]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기>의 실험에서 B 그룹과 C 그룹의 실험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할 때, 피험자의 경제적 목적은 제시된 바 없는 조건이므로, ③처럼 'B 그룹과 C 그룹의 결과로 보아 피험자에게 경제적 목적이 있을 때에 도움 행동이 더 잘 일어나겠군.'이라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실험 결과 A 그룹은 도움 행동에 나선 비율이 70%였고, B 그룹은 7%였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의 차이점은 실험 협력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였고, [가]에서 '일반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 주위에 제3자가 있으면 없을 때보다 도움 행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 ② 실험 결과, B 그룹의 도움 행동에 나선 비율은 7%로 다른 그룹에 비해 가장 낮았다. 그런데 그 이유는 [가]에서 "일반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 주위에 제3자가 있으면 없을 때보다 도움 행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제3자가 있을 때는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돕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돕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니 급한 상황이 아닌가 봐.' 하고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내용을 토대로 추론할 수 있다.
- ④, ⑤ [가]의 '주위에 존재하는 제3자가 낮은 사람일 경우보다는 친한 사람일 경우에 도움 행동은 더 빨리, 더 잘 일어난다. 이는 사람들이 도움 행동을 할 때 제3자가 친한 사람일 경우 자신에 대한 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부분을 토대로, C 그룹은 D 그룹에 비해서 옆 사람의 평가를 덜 의식했기 때문에 도움 행동에 나서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렸고, D 그룹에서 C 그룹보다 도움 행동이 더 많이 일어난 것은 옆에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17. 세부 정보에 대한 구체적 이해 **정답 ⑤**

[나]에 따르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움 행동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개인적인 선택과 행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 도움을 거부하기도 하며, 자신이 겪는 곤경이 자신의 성격, 능력, 자질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도움 행동을 거부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움을 주는 사람도 도움 행동에 나선 때는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⑤는 적절하다.

18. 문맥적으로 유사한 어휘의 선택 **정답 ②**

㉠의 '벗어나다'는 문맥적으로 '어려운 일이나 처지에서 헤어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②이다.

- ① '규범이나 이치, 체계 따위에 어긋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공간적 범위나 경계 밖으로 빠져나오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 '이야기의 흐름이 빛나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맡은 일에서 놓여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회**

[19~22] 지문 해제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

공적연금제도가 강제가임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와 공적연금제도의 재원 충당 방식을 연금 관리자와 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사람들이 은퇴 이후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일정 수준의 생활(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가 공적연금제도이다. 그런데 연금은 가입자가 비용은 현재 지불하지만 그 편익은 나중에 얻게 되므로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의 편익을 위해서 당장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제도는 강제가임을 원칙으로 한다. 공적연금제도의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은 연금 관리자의 입장과 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 각기 다르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연금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나눌 수 있고, 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납부하는 금액과 지급 받을 연금액의 관계에 따라 확정기여방식과 확정급여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19. 문맥적 이해를 통한 이유 추론 **정답 ④**

㉠의 이유는 ㉠ 이후의 문장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연금은 가입자가 비용은 현재 지불하지만 그 편익은 나중에 얻게 되는데, 사람들은 현재의 욕구를 더 긴박하고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의 편익을 위해서 당장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연금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④이다.

20. 세부 정보에 대한 분석적 이해 **정답 ③**

적립 방식은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받을 연금과 내는 보험료의 비율이 누구나 일정하므로 세대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다. 하지만 부과방식은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둔 보험료로 은퇴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 역삼각형의 인구구조가 만들어질 때는 젊은 세대의 부담이 증가되어 연금 체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③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을 적절하게 비교한 내용이 아니다.

- ①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해 기금을 만들고, 부과방식은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거둔 보험료로 은퇴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큼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 ② 부과방식은 제도 도입과 동시에 연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지만, 적립방식은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하므로 일정한

기금이 형성된 이후에 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부과방식”은 ~ “적립방식”과 달리 세대 간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으며”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⑤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인구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부과방식은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거둔 보험료를 연금 지급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인구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다.

**21. 자료에 대한 반응의 적절성 평가** 정답 ⑤

마지막 문단에서, 확정급여방식은 가입자가 얼마의 연금을 받을지를 미리 정해 놓고, 그에 따라 개인이 납부할 보험료를 정하는 방식으로, 기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의 실패는 연금 관리자가 부담하게 되고, 물가상승에 따른 손해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⑤에서는 확정급여방식이 투자 수익의 부실을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2. ‘-을’과 관련된 맞춤법 표기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모음으로 끝나거나 ‘ㄴ’ 받침으로 끝날 경우에는 ‘-을’로 표기하고, ‘ㄴ’ 받침을 제외한 받침 있는 일부 명사 뒤에서는 ‘-를’로 표기한다. 이에 ④의 ‘이자’는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을’로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③의 ‘자급’은 받침이 ‘ㅂ’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를’이 와야 한다. 즉, ‘자급를’로 표기해야 맞춤법에 맞는 표기가 되는 것이다.

**학**

**[23~26] 지문 해제**

**해양에서의 음속 변화 특징**

이 글은 해양에서의 음속 변화 특징을 수온과 수압에 따른 음속과 음파의 변화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음속은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는데, 물속에서의 음속은 공기에서보다 4~5배 빠르다. 물속의 음속은 수온과 수압이 높을수록 증가하는데, 해양에서 수압은 수심에 따라 증가하지만 수온은 수심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수온과 수압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의해 음속이 결정된다. 수온의 변화와 관련한 음속의 변화를 보면, 온도 변화가 거의 없는 표층에서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높은 음속을 보이고,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수온약층에서는 음속이 급격히 감소하다가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심층의 특정 수심에서 최소 음속에 이른 후 음속은 점차 다시 증가한다. 수온약층은 위도나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음속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음파를 휘게도 만든다. 음파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낮은 층 쪽으로 굴절하기 때문에 음파가 거의 도달하지 못하는 구역이 형성되는데, 이를 음영대라 한다. 그리고 음속이 최소가 되는

층을 음속최소층 또는 음파통로라고 부르는데, 음파통로에서는 음속이 낮은 대신 소리의 전달은 매우 효과적이다. 이와 같은 해양에서의 음속 변화 특징은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23. 글의 내용 이해를 통한 추론** 정답 ③

첫째 문단에서 물속에서의 음속은 공기에서보다 4~5배 빠르다고 하였고, 다섯째 문단에서 음속이 최소가 되는 음파통로에서는 음속이 낮은 대신 소리의 전달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이렇듯 지문에서 ‘물속에서의 음속’에 대해서는 언급했지만, ③처럼 물 밖에 있을 때보다 물속에 있을 때 물 밖의 소리가 더 잘 들린다고 추론할 만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① 둘째 문단에서, 표층은 태양 에너지가 파도나 해류로 인해 섞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거의 없고, 표층에서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높은 음속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 ② 둘째 문단에서 ‘그러나 그 아래의 층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기 어려워 ~ 더 깊은 심층에서는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 ④ 마지막 문단의 ‘음영대를 이용해 잠수함이 음파탐지기로부터 회피하여 숨을 장소로 이동하거나’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 ⑤ 음속이 최소가 되는 층을 음파통로라고 하는데, 마지막 문단에서 ‘음파통로를 이용해 인도양에서 음파를 일으켜 대서양을 돌아 태평양으로 퍼져 나가게 한 후 온난화 등의 기후 변화를 관찰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라고 한 부분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24.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답 ④

㉠의 이유는 첫째 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음속은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는데, 해양에서 수압은 수심에 따라 증가하지만 수온은 수심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수온과 수압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의하여 음속이 결정된다. 따라서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심층의 특정 수심에서 최소 음속에 이른 후 음속이 점차 다시 증가하는 이유는 ‘압력 증가의 효과가 수온 감소의 효과를 능가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④가 적절하다.

**25. 내용 이해를 통한 구체적 자료에의 적용** 정답 ④

둘째 문단에서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층을 수온약층이라 한다고 설명했고, 셋째 문단에서 수온약층은 위도나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하였다.

셋째 문단에서 보통 적도(<보기 2>의 A)에서는 일 년 내내 수심 150미터까지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그 이하부터 600미터까지 수온약층이 형성된다고 하였는데, <보기 1>의 (다) 지점의 경우 평균수온이 높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수온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일정한 수심에서 수온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다) 지점은 적도 지역의 수심에 따른 계절별 수온 측정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중위도(<보기 2>의 C)에서는 여름철에는 수심 50미터에서 120미터까지 수온약층이 형성되지만, 겨울철에는 표층의 수온도 낮으므로 수온약층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보기 1>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나) 지점이다. 겨울철에는 수온 변화가 거의 없지만 여름에는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극지방(<보기 2>의 B)은 표층도 깊은 수심과 마찬가지로 차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온약층이 거의 없다고 설명하였다. <보기 1>에서 평균적인 수온이 낮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수온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은 (가) 지점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가) 지점은 B와, (나) 지점은 C와, (다) 지점은 A와 연결되는 것이 적절하다.

**26. 문맥적으로 교체 가능한 어휘의 선택** 정답 ④

문맥상 ㉠의 ‘일어나다’는 ‘자연이나 인간 따위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의 ‘일어나다’는 ④의 ‘발생(發生)한다’와 바꿔 쓸 수 있다.

- ① ‘물건, 편지, 서류 따위를 우편이나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보낸다.’의 의미를 갖는 말이다.
- ② ‘출판물이나 인쇄물을 찍어서 세상에 퍼내다. 화폐, 증권, 증명서 따위를 만들어 세상에 내놓아 널리 쓰도록 하다.’ 또는 ‘길을 떠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다.
- ③ ‘어떤 조직체가 새로 만들어져서 일이 시작되다. 또는 그렇게 일을 시작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 ⑤ ‘호령(號令)을 내리다. 또는 내리게 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다.

**술**

**[27~30] 지문 해제**

**표현주의의 특징과 미술사적 의의**

이 글은 1910년을 전후하여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된 미술 사조인 표현주의의 발생 배경과 표현상 특징, 표현주의에 대한 당대인들의 반응 및 작품 감상 시 고려할 점, 표현주의가 소멸된 이유, 표현주의의 미술사적 의의 등을 설명하고 있다. 표현주의는 내면에 잠재된 강렬한 감정과 욕구를 소재로 하여 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했던 미술 운동으로, 회화에 사회의식을 반영한 사조로 평가받으며, 현대 회화에서 작품의 재현적 가치보다 개성적 가치가 중요한 미학적 개념으로 자리 잡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7. 세부 내용의 구체적 이해** 정답 ③

지문에서 표현주의 미술에 영향을 준 미술 사조가 무엇인지

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③은 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다.

- ① 첫째 문단에서 표현주의는 내면에 잠재된 강렬한 감정과 욕구를 소재로 한다고 언급했다.
- ② 마지막 문단에서 표현주의는 나치 정권으로부터 퇴폐 예술로 규정되어 탄압을 받았다고 서술하였다.
- ④ 첫째 문단을 통해, 표현주의는 독일 사회가 19세기 후반 전쟁의 후유증과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 ⑤ 셋째 문단에서 ‘표현주의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나타나는 형태와 색채를 통해서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작가의 감각과 감정 상태를 읽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였다.

**28. 내용 이해를 통한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⑤

셋째 문단에서 ‘표현주의는 감정과 이념을 표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입체적 구도의 균형이 주는 조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작가의 내면세계에 대한 메시지의 전달을 더욱 중시하였다.’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보기>에 제시된 표현주의 작가 콜비치의 대표작 「궁핍」을 보면서 ‘원근법을 통해 장면에 입체감을 부여한 것은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려는 콜비치의 의도가 구현된 것이겠군.’이라고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② 둘째 문단의 ‘표현주의자들은 판화를 많이 제작하였다. 작가들은 판화에서는 과장된 색채 대신 흑백 대조를 활용하여 극적인 효과를 얻으려 했고, 거칠고 날카로운 선들을 이용하여 당시의 부정적인 사회 상황을 드러내려 하였다.’라고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적절한 반응이다.
- ③ 셋째 문단의 ‘전통적인 감상 방식에 얽매어 있었던 당대 사람들은 표현주의의 어둡고 무거운 주제와 일그러진 형태, 자연스럽지 못한 색감에서 불편함을 느낀 것이다.’를 근거로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다.
- ④ 둘째 문단의 ‘당시의 내면 상태를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 대상의 형태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표현하였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적절한 반응이다.

**29. 문맥을 통한 어구의 의미 추론** 정답 ②

첫째 문단에서 표현주의는 내면에 잠재된 강렬한 감정과 욕구를 소재로 하여 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했던 미술 운동이라고 설명하였고, 둘째 문단에서 기존의 회화가 외적 세계의 모방에 초점을 두었다면, 표현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감정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이를 표현하기 위해 형태를 단순화하고 색채의 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였으며 대상의 형태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표현하였고, 즉흥적인 느낌을 주는 듯한 거친 붓놀림과 선에 의해 단순화된 형태와 과장된 색채를 선호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표현주의의 실험 정신으로 인해 현대 회화에서 개성적 가치가 중요한 미학적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할 때, '개성적 가치'는 ②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30. 문맥을 고려한 우리말 어휘로의 교체** 정답 ⑤

㉠의 '시도하다'는 '어떤 것을 이루어 보려고 계획하거나 행동하다.'의 의미이다. 따라서 ⑤처럼 ㉠을 '이끌었던'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포착하다'는 '요점이나 요령을 얻다.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리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잡아내다'로 고쳐 쓸 수 있다.
- ③ '선호하다'는 '어떤 가운데서 특별히 가려서 좋아하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특별히 좋아하였다'로 고쳐 쓸 수 있다.

**[31~33] 작품 해제**

**김용택, 「섬진강 1」**

힘차게 흐르는 섬진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절박한 남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시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바라본 풍경들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행에서 11행까지는 섬진강 강변에 어우러져 있는 작은 들꽃과 풀들의 모습을 묘사하였는데, 이때 '쌀밥'과 '숯불'에 비유되는 꽃들과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들은 농촌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주목받지 못한다는 면에서 민중들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12행부터는 산과 강이 어우러지면서 자연의 힘찬 생명력이 표현되었는데, 외부의 억압과 시련에도 마르지 않고 힘차게 흐르는 섬진강을 통해 섬진강을 중심으로 절박한 삶을 산 민중들의 강한 생명력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1. 작품의 표현상 특징 이해** 정답 ②

이 시를 보면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피가도', '같은', '~에도 없는', '흐르다' 등의 동일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해 시적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②는 적절한 설명이다.

- ① 감정 이입은 자연의 풍경이나 예술 작품 따위에 자신의 감정이나 정신을 불어넣거나, 대상으로부터 느낌을 직접 받아들여 대상과 자기가 서로 통한다고 느끼는 일을 말하는데, 이 시에서는 이러한 감정 이입이 드러나지 않는다.
- ④ 이 시에서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32. 작품의 다른 장르로의 변용** 정답 ①

주어진 시를 가지고 영상시를 제작한다고 할 때, <보기> 중 적절한 의견은 ㄱ과 ㄴ이다(①). '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라는 부분을 통해서는 산을 감고 흘러가는 물줄기의 모습(ㄱ)을 연상할 수 있고, '해 저

물면 저무는 강변에 / 쌀밥 같은 토끼풀꽃, / 숯불 같은 자운영꽃 머리에 이어주며' 부분을 통해서는 강변에 여러 가지 풀꽃들이 피어 있는 모습(ㄴ)을 연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ㄷ.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부분을 통해, 이 시를 가지고 영상시를 제작할 때 식물도감을 들고 꽃을 채집하는 학생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ㄹ. 이 시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곁곁 웃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농부의 모습을 연상할 만한 내용을 찾을 수 없다.

**33. 자료를 활용한 작품의 분석적 이해** 정답 ②

이 시에서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 어둠을 끌어다 죽이'는 주체는 섬진강이다. 따라서 '어둠을 끌어다 죽이'는 것은 부정적 세력을 몰아내려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은 끊이지 않고 흘러가는 섬진강과 함께 민중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의미하므로 ②처럼 느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현대소설**

**[34~36] 작품 해제**

**임철우, 「아버지의 땅」**

이 작품은 6·25 전쟁 때 좌익 활동을 하다가 행방불명된 아버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 '나'가 전방에서 군 복무 중 우연히 6·25 전쟁 때 죽음을 맞은 유골을 발견하고, 그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와 화해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 '나'가 참호를 파다 유골을 발견하면서 일어나는 현재의 사건에 과거 아버지와 관련된 기억과 어머니에 대한 회상을 중첩시켜 가면서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 유골의 수습이 끝나갈 때 눈이 모든 것을 하얗게 지워가는 모습은 아버지에 대한 '나'의 이해와 연결되면서 남북 분단의 상처를 극복하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34. 작품의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 ①

주어진 장면의 처음 부분에서는 어머니에 대한 회상 장면이 나오고, 이후에 아버지의 환영이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중략 줄거리] 이후는 현재 사건인데, 6·25 전쟁 때 죽은 사람의 유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나'의 회상과 상상이 중첩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건이 과거 회상, 인물의 상상과 중첩되고 있다.'는 ①은 적절한 설명이다.

**35. 소재의 의미와 역할 이해** 정답 ①

내용의 흐름상 ㉠의 '마루 밑'은 유년 시절의 '나'가 자주처럼 내 곁을 언제나 따라다니는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이 숨어 있다고 느끼던 곳이다. 따라서 ①처럼 ㉠을 '유년 시절에 겪었던 공

포로부터 도피하던 공간'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6. 자료를 활용한 작품 이해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⑤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이 작품에서 아버지와 화해에 이른 '나'는 좌익 활동을 하다 행방불명된 아버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극복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⑤처럼 '어느 버려진 밭고랑'이 이를 보여 준다고 볼 수는 없다. '어느 버려진 밭고랑'은 '나'가 발견한 유해처럼 아버지가 지금 쓰러져 누워 있을 어느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 ① '아버진 죄를 지었다.'라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 만 느낌이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 갔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그건 어디서 묻었는지도 모르는 ~ 내게는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져 있었다.'라는 내용을 통해 '나'가 아버지 때문에 정신적 고통과 상처가 매우 깊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아버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던 '나'가 본 아버지의 환영은 언제나 시키면 어둠 저편에 숨어서 핏발 선 눈알을 번득이며 나를 쏘아보던 모습이었는데, '현기증'이 인 이후 아버지를 이해하면서 보이는 아버지의 환영은 창백해 보이는 뺨에 마른 몸집을 하고 뺨하니 열려 있는 눈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채로 있다가 총성과 함께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데서 알 수 있다.
- ④ 아버지를 떠올리며 '시야가 부영계 흐려'지는 '나'의 모습은 <보기>에서 설명한 "아버지를 이해하며 화해하는 '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나'의 모습은 전쟁의 상처 극복을 기대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다.

**[37~39] 작품 해제**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조선 성종 때에 지은 가사로, 가사 문학의 효시로 평가되는 작품이다. 이 노래는 작가가 성종 연간에 벼슬을 사임하고 향리인 전라도 태인에 은거하면서 지은 가사로, 제목인 '상춘곡(봄 경치를 즐기는 노래)'에서 알 수 있듯이 봄의 풍경에 몰입한 작가의 풍류 생활을 제재로 하여, 아름다운 자연에서 봄날의 흥겨움을 느끼며 속세의 부귀공명을 버리고 안빈낙도의 생활을 하겠다는 결심을 노래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7. 작품에 사용된 표현 기법에 대한 이해** 정답 ③

[C]를 현대어로 풀이하면, '천천히 거닐며 나지막히 시를 읊조려 산속의 하루가 적적한데, 한가로운 가운데 참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없이 혼자로구나.'가 된다. 따라서 [C]에서 고독한 정서는 느낄 수 있지만 대조의 방법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④ [D]는 이웃들에게 산수 구경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란 ~하고 ~란 ~하세 / ~에 ~하고 ~익 ~하세'와 같이 대구가 사용되었다.
- ⑤ [E]는 화자가 술로 인한 취흥에 겨워 시냇물에 떠내려 오는 복숭아꽃을 보며 도연명이 묘사한 이상향인 무릉도원을 연상하고, 자신이 보고 있는 봄날의 들뜬이 무릉도원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38. 세부 정보에 대한 이해** 정답 ④

- ㉔은 산봉우리에 올라 바라보는 수많은 촌락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일 뿐 이상향이 실현된 공간을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④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 ② 화자가 봄에 느끼는 흥취를 수풀에 우는 새가 봄기운을 이기지 못해 운다고 표현한 것이므로, 화자의 흥취가 자연물에 투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 ③ 녹수를 건너온 봄바람이 술잔의 술 향기가 되고, 아름다운 봄꽃이 옷에 떨어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한 것이다.

**39. 자료를 활용한 감상의 적절성 판단** 정답 ③

<보기>에서는, 조선 전기 사대부들에게 자연은 지극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었고, 정극인 역시 자연과 소통하며 삶의 충만함을 느끼고자 했으며 이러한 세계관이 잘 드러난 작품이 <상춘곡>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관점에 근거하여 주어진 작품을 '자연의 즐거움을 얻는 공간으로 묘사하며 심리적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군.'이라고 감상한 ③은 적절한 내용이다.

**고전소설**

**[40~42] 작품 해제**

**작자 미상, 「임장군전」**

인조가 남한산성에서 청 태종에게 무릎을 꿇은 병자호란을 소재로 한 전쟁 소설이다. 이 작품은 그 시대의 다른 전쟁 영웅 소설과 달리 몇 가지 허구화된 내용만 제외하면 주인공 임경업 장군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 대부분의 소설들과 달리 해피엔드가 아닌 불행한 결말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은 명나라에 대한 충성과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 남한산성에서 굴욕적인 항복에 대한 정신적 보복을 주제로 삼아,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적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여야 할 사대부 관료들이 난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권모술수와 자신의 영달에만 골몰하던 상황을 배경으로, 이들에 대한 분노와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40. 작품의 서술 방식 이해** 정답 ②

이 글은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쓰인 영웅 소설로, 시간의 흐

- 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②는 적절한 설명이다.
- ①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으며 서사 전개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고 있지 않다.
  - ③ 상황 변화에 따른 인물의 성격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41. 세부 정보에 대한 이해** 정답 ②

㉠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이어지는 호왕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너는 수만 군을 거느려 가만히 황하수(黃河水)를 건너 동해로 돌아 주야배도(晝夜倍道,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 갑절의 길을 걸음.)하여 가면 조선이 미처 기병치 못할 것이오, 의주서 알지 못할 것이니, 왕도(王都, 왕궁이 있는 도시)를 엄습하면 어찌 항복받기를 근심하며, 대사를 성공하면 경업을 사로잡지 못하리오.”를 통해, 호병을 파한 경업을 사로잡기 위해 호국의 제장들이 낸 ‘기이한 계교(計交)’는 의주를 우회하여 왕도를 급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2. 자료를 활용한 세부 정보의 이해** 정답 ⑤

- ㉠은 호병이 강화도까지 점령하여 왕대비와 세자·대군을 잡아다가 송과 벌에 진을 치고 항복할 것을 종용하며 협박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을 조선의 굴욕적 패배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굴욕적 패배에 대한 정신적 보상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② 호병이 백성을 살해하고 성중을 노략하여, 도성에 곡성이 진동하며 백성이 살기를 도모하는 모습이 참혹하다는 것이므로, ㉠은 독자들에게 청나라의 만행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할 수 있다.
  - ④ 호병의 침입으로 인해 백성이 도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화유수 김경징은 좋은 군기(전쟁에 쓰는 도구나 기구)를 곳간에 넣어두고 술만 먹고 누웠다는 것이므로, ㉠은 외침에 대처하지 못한 지배층의 잘못을 비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필**

**[43~45] 작품 해제**

**김용준, 「두꺼비 연적을 산 이야기」**

특이한 모양의 두꺼비 연적을 소재로 한 일상사를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고 있는 수필이다. 어느 날 글쓴이는 가다 오다 심심하면 들러서 한참씩 한담을 하던 골동품 가게에서 볼품없고 어설픈 모양의 두꺼비 연적을 본다. 그리고는 값도 묻지 않고 덮어놓고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온다. 이에 아내는 집안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쓸모없는 연적을 사 왔으며 바가지를 긁고, 글쓴이는 연적 산 값을 보충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된다. 글쓴이는 볼품없는 두꺼비 연적을 통해 세속적 영리와 거리가 멀고 순박함을 사랑하는 조선 사람

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고독한 자신에게 위안을 준 다며 두꺼비 연적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43. 글의 서술상 특징 파악** 정답 ②

이 글의 ‘네 눈과, 네 입과, 네 코와, 네 발과, 네 몸과, 이러한 모든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너를 만든 솜씨를 보아 너의 주인은 필시 너와 같이 어리석고, 못나고, 속기 잘 하는 호인(好人)일 것이리라.’, ‘그 못생긴 눈, 그 못생긴 코, 그리고 그 못생긴 입이며 다리며 몸뚱어리들을 보고 무슨 이유로 너를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등에서 열거법을 사용하여 두꺼비 연적에 대한 글쓴이의 관심을 강조하고 있다(ㄱ). 또한 ‘특 튀어나온 눈갈과 떡 버티고 앉은 사지(四肢)며 아무런 굴곡이 없는 몸뚱어리 ~ 재주를 부릴 대로 부린 것이 한층 더 사랑스럽다.’, ‘너는 어제 그리도 못생겼느냐. 눈알은 왜 저렇게 튀어나오고~ 흡사히 시골 색시가 능라주속(綾羅紉屬)을 멋없이 감은 것처럼 어색해만 보인다.’ 부분에서, 대상을 익살스럽게 묘사하여 두꺼비 연적에 대한 친밀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ㄷ). 따라서 ㄱ과 ㄷ은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44. 세부 내용에 대한 이해** 정답 ②

- 두꺼비 연적을 사 온 것에 대해 아내가 ‘쌀 한 되 살 돈이 없는 판에 그놈의 두꺼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느냐고 하자, 글쓴이는 화를 벌컥 내면서 “두꺼비 산 돈은 이놈의 두꺼비가 갚아 줄 테니 걱정 마라.”라고 소리를 치고 있다. 그리고 이 연유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잠꼬대 같은 이 한 편의 글 값이 행여 두꺼비값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내 책상머리에 두꺼비 너를 두고 이 글을 쓸 때 네가 감정을 가진 물건이라면 필시 너도 슬퍼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할 때 ‘이렇게 글을 써 돈을 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라는 ②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이 글의 ‘~ 무슨 이유로 너를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 나의 고독함을 너 같은 성격이 아니고서는 위로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부분을 통해 볼 때, 글쓴이는 두꺼비 연적을 고독한 삶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답이다.

**45. 작품에서 핵심 소재가 갖는 의미 추론** 정답 ③

㉠의 바로 앞부분에서 글쓴이는 두꺼비 연적에게 ‘가장 호사스럽게 치레를 한다고 네 몸은 얼썹덜썹하다마는 조금도 화려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며 ㉠에서 이는 마치 시골 색시가 비단을 멋없이 감은 것처럼 어색해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글쓴이인 ‘나’가 두꺼비 연적의 외양이 화려함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③은 적절하게 이해한 내용이다.